



ANDA  
ASIA VENTURES

#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25.12)



## CONTENTS

### • 안다아시아벤처스 현황 보고

1. 케이비-안다 딥테크 벤처투자조합 결성
2. 슈퍼게이트 투자 완료
3. 코트라스 투자 예정

## 1. 케이비-안다 딥테크 벤처투자조합 결성



ANDA  
ASIA VENTURES

 KB 증권

당사는 2025년 12월 23일부로 케이비-안다 딥테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본 펀드는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유망 딥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과 사업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성장 단계별로 기업의 자금 수요와 사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초기 기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 발굴은 물론, 후속 투자 연계와 사업 협력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펀드 결성을 통해서, 당사의 정부 출자 블라인드 벤처펀드는 총 4개 약 984억원, 전체 AUM(펀드 잔고)는 1,488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벤처투자회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투자기업과 출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출자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5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다아시아벤처스 직원일동

# 2025년 12월 회사 주요소식

## 2. 슈퍼게이트 투자 완료



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5년 12월 19일 안다AI반도체투자조합1호의 재원으로 슈퍼게이트의 상환전환우선주 구주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슈퍼게이트는 슈퍼컴퓨터, 커스텀 SoC(System on a Chip,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한 개의 칩에 들어 있는 형태), AI 엣지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반도체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향후 슈퍼컴퓨터(HPC)용 반도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NPU 등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따라, 관련 시장은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에 따르면 AI 반도체는 연평균 17.4%, 엣지 컴퓨팅은 연평균 3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슈퍼게이트의 가파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슈퍼게이트는 최근 3년간 매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22년 64억원, `23년 142 억원, `24년 183억원), `25년 에도 253억원 매출액이 예상되는 등 탄탄한 성장 기반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25년 5월 예비 기술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으며, `26년 하반기 IPO 시 투자수익률 2.7배(IRR 163%) 달성이 기대됩니다

## 3. 코트라스 투자 예정



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6년 1월초 스마트안다-오텍케어그린뉴딜펀드, 스타트업코리아센틱스안다전북혁신펀드의 재원으로 코트라스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코트라스는 디지털 인지치료기기 및 재활로봇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하지재활로봇 중심의 회복 단계별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의료기기 3등급 인증과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완료한 주력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재활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활로봇 시장은 고령화 심화와 재활의료 수요 증가, 재활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 인프라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재활의료 정책 강화와 로봇 치료 수가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 기조가 중장기 성장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금번 투자를 계기로 국내 양산체계 구축과 함께 재활로봇의 해외 임상·인허가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재활로봇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1위 달성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판매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과 임상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2028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장 이후에는 단계적 지분 회수를 통해 투자금 대비 IRR 159% 이상의 수익 실현이 기대됩니다.